

茅盾의 『子夜』 소고

李 賢 馥^{*}

<목 차>

1. 서론
2. 소설 창작의 목적
3. 자본주의적 근대의 좌절
4. 주체의 확대
5. 결론

1. 서론

1927년 4.12 정변은 중국 혁명의 성격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신해혁명 이래 근대적 국민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던 국민혁명이 국민당의 부분적 승리와 집권, 그리고 정치적 파트너였던 공산당에 대한 배신으로 막을 내리면서 혁명을 이끌어왔던 좌우합작은 현실적으로 붕괴되었고, 사회주의적 근대의 모색은 배제되었다. 본질적인 내용을 달리하는 이념이 근대적 국가의 건설과 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각 세력의 긴장된 통일이 유지되어 왔지만, 결정적 순간 본질적인 차이는 극복되지 못했으며, 이후로는 각자가 구상하는 상이한 근대를 실현하기 위한 상호간의 극단적 갈등만이 남아 있게 되었다. “혁명”이라는 동일한 이름을 말한다하더라도 그 앞에는 보이지 않는 다른 수식어가 붙어야 했고 의미하는 바는 달라져야 했다.

* 고려대학교 중문과 강사

이러한 변화에 따라 20년대 후반 혁명의 고조와 좌절의 정세 속에서 다소 불분명한 모습으로 제기되었던 혁명문학은 점차 사회주의적 근대의 구축을 지향하는 좌익문학으로 전환되었다. 좌익문학으로의 변화는 기존에 신해혁명이래 추진되던 국민혁명이 지향하는 근대와는 다른 근대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했다. 혁명의 실패는 당시에 사회성격논쟁과 같이 현실에 대한 분석과 혁명 전략의 변경을 둘러싼 논전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근거해 각각의 정치세력들은 구상하는 근대의 상도, 그것을 추구하는 중심적 주체도, 그리고 그 추진의 전략에 있어서도 그 차이를 노골화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茅盾의 문학활동이 놓여 있었다. 혁명을 참여했던 茅盾도 현실 정치의 변화에 따라 문학방면에 있어서 사회적 변화에 상응하고 사회의 요구에 호응하는 변화와 실천을 도모해야 했다. 그렇다면 그의 문학은 어떠한 변화를 그렸던 것이고 무엇을 알리려고 했던 것일까? 그 일단을 그의 대표적인 작품인 『子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소설 창작의 목적

茅盾은 『從牯嶺到東京』의 서두를 다음과 같이 열었다. “영국의 비평가는 이렇게 말했다. 졸라는 소설을 쓰려해서야 인생을 경험했고, 톨스토이는 인생을 경험한 후에야 소설을 썼다.” 또 이어서 그는 “남들은 나를 자연주의의 신도라고 말하지만—지금 나는 오랫동안 자연주의를 말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그러나 실제 나는 자연주의의 규칙에 따라 내 창작을 시작하지는 않았다. 반대로 나는 진실하게 생활에 다가가 동안중인 중국의 가장 복잡한 인생의 일막을 경험하고서 드디어 환멸의 슬픔과 인생의 모순을 느낄 수 있었다. 음울한 심정과 고독한 생활 속에서 여전히 삶의 집착에 얽매여 내 생명력의 남은 불씨를 다른 것에서 찾아 이 혼란스러우며 잿빛인 인생 안에

서 희미한 빛을 발하게 하고자 했다. 그래서 나는 창작을 시작했다. 나는 소설을 쓰기 위해서 인생을 경험한 것이 아니다.”¹⁾ 여기서 말하는 “자연주의” 소설은 창작 주체의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세계이자 그 세계에 대한 인식이며, 그 세계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소설을 쓰고자 해서 인생을 경험했다는 것은 수없이 다양한 개별적 경험을 이성을 통해 인식하고 법칙에 따라 재단하여 재현해내는 것을 일컫는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장르라기보다는 이성에 바탕을 둔 인식론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이성을 통해 정확한 세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전제를 茅盾은 이 시점에서 회의한 것으로 보인다. 茅盾에게 진실한 실천은 전자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생활로 들어가는 것이며, 그만큼 다양한 경험에서 슬픔과 같은 감성과 삶의 구체적인 모순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개인의 경험은 그를 제약하는 그 바깥의 객관적 조건으로부터 영향을 받지만 다양한 개체, 혹은 주체의 수만큼 그 색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경험에서 출발한다고 하면 그 다양한 색깔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그로부터 일견 죽어있는 객관의 세계가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 만일 작가가 위와같이 소설에서만 출발한다면 미리 정해진 틀에 따라 주체의 경험을 그에 맞출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반면 경험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그 존재로부터 시작된 글쓰기, 주체의 주관적 경험으로부터 파생되는 글쓰기를 말한다. 그런데 다르게 본다면 이 두 가지 방법 각각이 모두 위험을 갖고 있다. 소설 창작, 혹은 글쓰기는 객관적 이념의 적용과 현현에 그침으로써 생명력을 잃어버릴 위험이 한편에 자리한다면 다른 하나는 주관성에만 매몰되어 보편과 만나지 못하고 주체의 특수성 안에 갇혀 버릴 수 있다.

위의 출발에서 본다면 茅盾은 후자를 선택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정말 茅盾은 후자만을 이야기한 것일까? 그는 牯嶺에서 알게 된 폐병을 앓고 있던 云小姐에 대해 언급했다. ““병”때문에 그녀의 건강이 상한 것이 아니라 “병”의 그림자 때문에 云小姐가 소극적인 상태와 흥분 사이를 오간 것이다.”²⁾

1) 茅盾, 「從牯嶺到東京」, 『“革命文學”論爭資料選集・下』,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1), p.679.

2) 앞의 책, p.680.

폐병은 분명 그녀의 개인적인 병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그녀가 갖게 된 소극적인 성격과 흥분 상태 역시 개인의 감정이다. 그러나 이 개인적 경험은 사실 그와 그녀 모두가 경과했던 그 시대와 중국과 연결시켜 볼 수 있다.

그런데 “병”을 단순한 신체의 질병만이 아닌 정치적, 경제적 현실이나 혁명의 실패와 같은 것과 연결시킨다면, “소극적”과 “흥분”과 같은 병적인 심리상태는 혁명의 실패 혹은 사회적 실패에서 야기된 것이 아니라 그 그림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그림자는 객관적 실재라기보다는 주체의 주관적 심리 상태나 반응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림자로부터 야기된 침체에 빠져있던 그 모습과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일련의 과정이 환멸, 동요, 추구의 창작 과정이 곧 牯嶺으로부터 東京로 이어지는 여정이자, 그가 소설을 쓰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그는 『幻滅』과 『動搖』에서는 객관적 상황의 묘사를 말했다. “내가 관심을 기울인 것은 이것뿐이다. 개인의 주관을 섞지 않고 『幻滅』과 『動搖』의 인물들의 혁명에 대한 반응이 당시의 객관적 정세에 부응하도록 하는 것이다.”³⁾ 그리고 그는 『追求』에서 오히려 그것은 작가의 고민을 그대로 드러냈으며 비관의 색채를 드러내어 광란의 혼합물을 적어 냈다고 말했다.⁴⁾ 이 흐름 속에서 그는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객관적 상황을 보이려고 했으며 한편으로는 그 퇴폐적이고 비관적인 감정 자체도 그대로 보이려고 했다. 어쩌면 단절적이고 다른 것으로 보이는 이 태도는 근본적으로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생활의 경험에서 출발하고자 하는 태도이다. 한편으로 그것은 이를 객관적 세계를 그대로 보려는 노력이며 그것과 개별적 경험을 조화시키려는 시도이다. 중요한 것은 그가 글쓰기를 통해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주체를 융합시키고자 했다는 것이다.

시기적으로 그의 환멸과 동요와 추구는 국민혁명의 실패와 연관되어 있다. 이 정치적 격동의 시기에 그가 마주한 것은 이론적으로 현실을 재단하려고 하는 경향이였다. 1927년 국민혁명의 배신과 실패는 혁명에 대한 기존의 국민혁

3) 앞의 책, p.681.

4) 앞의 책, p.688.

명에 대한 반성을 요구했다. 실패는 좌절과 병증을 가져왔다. 그러나 그것은 “병”이 아니라 “병의 그림자”인 것이다. 요는 그림자를 벗어나려는 그의 노력이고 실천이다. 그것은 그에게 문학이자 소설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혁명문학의 주체의 문제와 연결시켰다. 그는 당시의 혁명문학의 제창을 언급하면서 혁명문학의 대상의 문제를 언급했다. 5.4문학 전통의 오류를 지적하며 제창된 혁명문학은 객관적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대중이라는 새로운 혁명주체가 대두되는 상황은 인정하지만 그에 맞는 문학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노동대중에게 맞는 언어, 그들에게 맞는 형식을 만들어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신문학이 대중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방언문학 등이 대안이 될 수 있겠으나 그것은 극히 어려운 과정이라고 보았다. 그는 혁명문학의 문제가 작가가 상정한 작품의 대상과 작품의 수용 대상 즉, 독자의 불일치라고 보았다. 전자는 노동대중이지만 후자는 소자산계급이다. 그는 소자산계급은 혁명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본다. 대상은 혁명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이지만, 그들을 혁명하는 것은 전체 혁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래서 그는 노동대중 등 신흥계급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신문예의 취약한 대중기반을 확대하기를 원한다. 이 대중에는 노동대중만이 아닌 소자산계급 즉 상인, 지식인 등이 포함된다. 그는 문학이 이들의 고민을 담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의 구체적인 생활과 그 언어에 집중하고 그것으로 드러나는 그들의 삶의 고민에 다가설 것을 이야기한다.⁵⁾

이때, 개혁해야 하는 것은 곧 소자산계급의 시민으로서 그들의 취향이다. 그래서 그는 지나치게 유럽화한 것, 새로운 언어를 쓰는 것, 지나치게 상징적인 것, 지나치게 설교적이어서 선전적인 것을 비판한다.⁶⁾ 이는 문학적으로는 5.4신문학의 전통에 대한 비판이면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던 혁명문학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이러한 입장은 5.4 이래의 신문학이 중국의 현실에서 벗어

5) 앞의 책, pp.689-696.

6) 앞의 책, p.688.

나 유럽화된 언어와 문학의 법칙에 얽매어 있으며, 이러한 기초 위에 창작된 소설과 문학 자체뿐 아니라 개인적 경험을 제약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태도와 방법으로서, 문화로서 지난 혁명운동이 실패를 대표한다는 것이다.

5.4. 신문학이나 혁명문학이나 그 바탕은 서구적 근대이며, 서구적 근대의 보편성과 일원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은 현실과 유리되어 형식적 난해함을 가지고 있고 이론적으로 단순화되고 교조화 되었다. 이 역시 개인적 경험, 그 특수성의 다양함을 사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 茅盾은 이것을 아프게 만드는 병의 그림자로 본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과 태도에 대한 비판과 변화는 그림자로부터 벗어나는 출로가 될 수 있었다.

牯嶺의 시기에서 출발한 그가 도착한 東京는 그림자가 만들어낸 고민과 동요로부터 벗어나 존재의 주관적 경험을 객관적 조건과 통일시키는 것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리고 주체를 세우는 문제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가를 말한다. 그는 혁명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혁명의 주체를 넓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은 태도의 문제였다.

그리고 그는 약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민족자본가를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을 창작한다. 茅盾은 『「子夜」是怎樣寫成的』에서 『子夜』의 창작 목적을 시대적 상황과 연결시켜 언급했다. 1930년 봄 세계 공황이 상해에 이르렀을 때, “중국 민족자본가는 외국자본의 압박과 세계경제공황의 위협 하에서 자신의 위기를 전가하기 위해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를 심화시키고 노동시간을 늘렸으며 임금을 줄이고 노동자에 대한 대규모 해고를 자행했다. 이는 노동자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 일으켰다. 경제 투쟁은 폭발했고 경제 투쟁은 곧 정치투쟁으로 전환되었다. 민중운동은 당시 객관적 조건이 좋았다.” “내가 병세가 호전되었을 때, 마침 중국 혁명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고 중국사회성격논쟁은 격화되었다. 그 때 나는 소설의 형식을 빌어 다음의 세 가지를 담아내려고 했다. 첫째, 민족공업은 제국주의 경제 침략의 압박 하에서, 세계경제의 공황의 영향 하에서, 그리고 농촌이 파산하는 환경 하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잔혹한 수

단을 빌려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를 강화했다. 둘째, 이로 인해 노동자 계급의 경제적·정치적 투쟁이 야기되었다. 셋째, 당시 남북전쟁, 농촌경제의 파산과 농민 폭동은 민족 산업(공업)의 공황을 더욱 심화시켰다.” “이 삼자는 서로 인과 관계에 있다. 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시작해 형상적 표현을 더하고자 했다. 이 소설은 당연히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답하고자 한 것은 이 하나이다. 즉, 트로츠키파에 답하는 것이다. 중국은 결코 자본주의발전의 길에 들어서지 못했으며 중국은 제국주의의 압박 하에서 더욱 식민지화되었다. 중국민족자산계급 중 일부는 프랑스 부르주아 계급의 성격과 닮았지만 1930년대 반식민지 중국은 18세기 프랑스와 달랐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자산계급의 전도는 매우 암담했으며 이러한 토대에서 중국민족자산계급은 동요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그들의 “출로”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제국주의에 투항해 매관화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봉건세력과 타협하는 것이다. 그들은 결국 이 두 길로 나아갔다.”⁷⁾

20년대 후반 중국에서 사회성격 논쟁이 촉발된다. 논쟁은 크게 세 가지 경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新思潮派로서 潘東周, 何幹之 등이 이에 속한다. 이들은 1927년 이후 공산당이 수용한, 공식적인 스탈린주의적 중국 혁명 노선을 변호했다. 중국을 半封建半殖民地 상태로 보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투쟁의 대상은 봉건주의와 제국주의 국가들이 되었다. 봉건세력과 제국주의 세력이 결합하여 중국에서 서구와 같은 근대적 발전을 저해하는 바 이들과의 투쟁을 통해 중국은 독자적인 근대화를 추진해야 했다. 역사적 발전단계에서 자본주의로의 발전을 방해하는 봉건세력과 제국주의 세력에 대한 투쟁은 민족자본가로 지칭되는 일부 자산계급과의 연대를 가능하게 하며 또한 봉건세력과 제국주의 세력의 경제적 착취와 정치적 억압은 자유주의자들과의 연대 역시 가능하게 한다. 둘째 動力派는 트로츠키주의자들로 공산당의 주장과 대립각을 형성했다. 嚴靈峰과 任曙가 이 그룹에 속한다. 이들은 반봉건반식민론을 부정하고 중국은 제국주의의 침략에 의해 이미 자본주의로 접어들었다고 본다. 이러

7) <http://www.sanwen8.org/zuojia/maodun/maodunsanwenji/97705.html>

한 관점에서 자산계급은 적대적 계급으로써 어떻게 성격을 규정하든 혁명의 과정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들이 아니다. 다른 하나는 新生命派로서 陶希聖과 顧孟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국민당 좌파들로서 역시 반봉건반식민지론을 부정하되 구미식의 자본주의를 중국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⁸⁾ 신사조파는 트로츠키파인 동력파와 신생명파를 공격하며 중국이 반제반봉건의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보았다. 반봉건과 반제의 과제는 계급적으로 노동자와 농민의 소위 신흥계급만이 아니라 자산계급의 일부와 자유주의자들을 견인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 또한 “민족”을 혁명에 끌어들이므로써 적어도 주체면에 있어 혁명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었다. 즉, “민족”으로서 정체성에 동의하는 이들을 자신들의 혁명에 끌어들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쟁들은 중국적 특수성과 연결된 문제였다. 서구와 소비에트러시아로부터 전래된 혁명이 중국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은 그들이 경과한 국민혁명을 통해 이미 드러났다. 국민혁명은 근대적 민족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운동으로서 서구적 보편성을 중국에 실현시키고자 했었다. 국민혁명의 좌절은 중국의 현실 속에서 서구중심적 혁명운동의 좌절이자 실패를 의미했다. 그 실패로 인한 좌절을 겪은 후 다시금 언급되는 혁명은 이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출로의 모색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했다. 중국의 현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그에 따른 중국적인 개혁의 방법이 도출되어 나와야 했다. 사회성격논쟁은 그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 논쟁은 적어도 역사발전에 대한 공통점을 가지고 이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중국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이었다. 서구를 모델로 한 혁명의 실패와 중국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서구중심의 일원론적인 사회역사관으로부터 보다 다양한 사회상이 있다는 생각을 구체화시키는 계기였다. 서구적 보편성으로부터 중국적 특수성이 논의의 가운데 들어온

8) 사회성격논쟁에 대해서는 Arif Dirlik, *Revolution and History*,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8을 참조하라. 1927년의 정변을 혁명의 실패로 인식한 이들은 유럽과는 다른 중국의 역사적 단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상응하는 혁명적 전략을 내오고자 했다. 논쟁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루어졌다.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서구와는 다른 경험의 세계가 존재함을 말한다. 또한 이것은 그 주체로서 사회적 계급의 출현과 갈등의 해결이나 봉건적 사회의 변화나라는 문제와 연관된다. 즉, 변화의 주체와 성격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둘러싼 논쟁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것에서 보았을 때 茅盾은 당시의 현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의 혁명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의 문제에 대한 응답으로서, 혹은 선택으로서 소설『子夜』를 창작했던 것이다. 茅盾은 혁명과 정치의 변화를 마주하며 그 현실에 좌절했지만 병증의 그림자에 휩싸이고자 하지 않았고 현실로부터 출발하고자 했다. 그것은 다양한 색깔을 가진 삶과 경험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반봉건적 도덕적 가치의 제안을 넘어서는 것을 문학을 통해 제시하고자 했다. 그는 도덕적 계몽에서 나아가 경제적 소외의 문제를 폭로하고자 했으며 감정을 무분별하게 배설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현실을 그려내고자 했다. 여기서 과학은 마르크스주의의 역사적유물론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읽어야 한다. 이전까지 5.4의 전통과 국민혁명이 새로운 도덕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에 있었다면, 그는 개인주의적 감정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현단계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근대를 상상하고 구축하는 것을 그 임무로 삼았던 것이다. 茅盾의 주된 관심사는 (적어도 그의 문학론을 따르자면) 세계를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며 총체적으로 재현하는 것이었다.⁹⁾

茅盾의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신념은 점차 붕괴되어 가는 자본주의 사회를 공격하는 것에 머물지 않았으며, 그로 하여금 압박한 변화에 대한 예언과 함께 전진하게 만들었다.¹⁰⁾ 즉, 그는 붕괴하는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는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이다. 그는 부르주아의 지식인들이 것처럼 이데올로기적 확신으로 향하는 싸움에 나서길 기

9) 정진배, 「『子夜』 읽기의 한 유형—글쓰기와 역사성의 문제」, 『중국어문학논집』 15, 중국어문학연구회, 2000.10, p.197.

10) David Der-wei Wang, *Fictional Realism in 20th-Century Chin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2, p.75.

대했으며 대중혁명을 이끄는 실천가들이 되기를 바랐다.¹¹⁾ 즉, 그의 문학 창작은 당시의 역사적 단계에서 중국의 민족자본의 정치적, 경제적 이상이 갖는 한계를 보여주고 혁명이 나아갈 지향을 보여주려는 것이며 아울러 이것을 추진할 주체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3. 자본주의적 근대의 좌절

트로츠키파에 대한 답이라는 『子夜』는 본래 그의 구상에서는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의 현상도 자세히 담고자 했다. 그러나 그는 당시 개인적인 한계로 인해 도시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음을 후기 등을 통해 거듭 이야기 했다.¹²⁾ 실제 농촌의 이야기는 분량도 적고 서술도 직접적이기 보다는 제3자를 통한 전언처럼 다루어졌다. 반면 주된 서사는 도시에서의 사건에 집중한다. 상하이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는 간략히 말한다면 민족산업 혹은 민족자산가의 실패기라고 할 수 있다.

작품은 다양한 인물군상을 제기하고 그들이 얹혀 있는 현실의 사건을 보여주었다. 특정한 인물들과 사건의 교차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근대의 상을 추상화낼 수 있다. 『子夜』에서 정치는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여러 사건들의 교차를 관통하는 금전적 이익을 위한 경제적 욕망과 이것을 향한 인물들의 분투이다. 그런데 이러한 욕망과 분투의 중심인물인 吳荪甫의 민족산업 육성의 꿈은 民生主義 국가를 구상하는 국민정부의 정치경제적 이념과 상당부분 궤를 같이 한다. 특히 茅盾은 吳荪甫를 민족자본으로 묘사하면서 자국자본과 산업을 파괴하는 금융자본¹³⁾의 매판적 성격과 대비시킴으

11) 茅盾, 「讀『倪煥之』」, 앞의 책, p.75에서 재인용.

12) 茅盾, 「『子夜』後記」, 『茅盾全集·3』,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4), pp.553-554.

13) 전근대 중국에서 향촌의 지주나 제한된 시장에서 활동하던 상인들은 고리대 등을 바탕으로 지역 농민들을 착취하고 수탈했으며, 그 자신들이 금융자본으로 화하거나 중간수탈자

로써 반제적 성격을 부여함과 동시에, 농민을 농토에서 추방시키는 금융자본과 달리 농촌의 산업 근대화를 추진하는 반제반봉건을 실현하는 주체로서 제시하고 있다.

孫文의 三民主義에 바탕을 둔 국민혁명은 왕조정을 대신해 근대적 국가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孫文은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에서 벗어나 부강한 국가를 만들려고 하였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국가건설 과정으로 軍政—訓政—憲政의 단계를 제시했다. 삼민주의에 바탕을 둔 민생주의는 정치경제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반면 훈정은 그들의 政體의 성격을 보여준다. 기실 훈정은 어떠한 미사여구를 붙여도 결국은 근대를 추진한다는 미명하에 정적과 민중을 정치에서 배제하는 독재정치였다.

孫文은 민생주의 국가의 실현방법으로서 ‘實業振興, 地權平均, 節制資本’을 들었다. 실업진흥과 절제자본은 사실 모순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는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보장하는 반면에 후자는 자본가계급의 이윤 추구를 제한한다. 이는 민생주의 이념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와는 다른 제3의 길로 읽도록 만든다. 그들은 민족공동체에 기반한 근대적 국가를 상상했는데, 민족공동체에는 내부 성원의 평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계급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국가 내에서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계급간의 조화가 필요하다. 민생주의의 이념에서 발전은 갈등하는 모순의 충돌과 그 변증법적 해결을 통해서가 아니라 모순의 조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 南京政府는 국가 내부의 여러 요소나 세력이 갈등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부강한 국가가 수립될 수 없다고 보았고 대신 각 세력들을 정부 아래 통합시켜 단일한 목적의 실현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로써 농민과 국내의 거대금융자본의 연결선이 되었다. 이 연결선에 자리한 농민들은 농토에서 쫓겨나 도시로 흘러들어 도시노동자와 빈민이 되었고 이들 중간자들이나 또 반대쪽 일단의 자본가들은 자본의 축적과 산업예비군의 확보로 막대한 이익을 볼 수 있었다. 한편 금융자본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은행과 연계되어 있었으며 주식과 공채시장 등을 통해 외국자본과 거래했기 때문에 매판적 성격을 띠고 있다. 작품에서 趙伯韜를 매판자본이라 지칭하지도 않으며, 거래하는 외국금융기관이나 사업체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그는 거대한 금융트러스트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공채시장에서 투기로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된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민생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의 대상 역시 전제되어 있었다. 첫째는 제국주의로 국민정부는 이들에 대해서는 민족산업의 육성을 통해 민생국가의 경제발전을 꾀하는 것으로 맞서려고 했다. 둘째는 계급투쟁을 조장하여 국가자본의 형성을 어렵게 만드는 세력, 즉 공산당과 공산주의였다. 이들에 대해서는 공산당과 공산당원을 숙청함과 아울러 노동운동과 노조를 국민당과 정부의 통제 아래 두는 정책을 폈다. 세 번째는 민중 안에 남아 있는 ‘낙후된 사고방식과 태도’, 즉 전근대적인 요소였다. 이는 봉건제와 종법제가 대표하는데 농촌문제와 관련 있었다. 그런데 농촌문제의 해결은 지주와 소작농 사이의 전통적 농촌경제체제의 해결이 아니라 향촌 안에 남아 있는 봉건적인 유제를 청산하는 일로서 각 지역의 토호열신을 통제하는 것이었다. 대지주와 소작농의 계급대립의 문제보다는 지방권력자로서 이들을 봉건세력으로 규정하고 통제하는 것에 있었다.

이러한 봉건성, 종법성과 함께 지방주의 역시 투쟁의 대상이었다. 당시 상인조합(商會)과 노동조합(工會) 등은 이익집단이었는데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동향조직을 바탕으로 조직되고 운영되었다. 때문에 이를 통일시키고 통제하려는 당정의 정책이 관철되기는 쉽지 않았다. 본래 국민정부의 훈정은 당과 연관 없는 특정 집단이나 사람이 합법적 권력을 갖는 것을 금하려는 의도가 강했다. 민중들은 의회와 같은 형식적인 민주정치의 제도에 참여할 길이 제한되었으며 국민정부가 조직하는 각 통일조직들에 속해서 국민정부의 이념과 정책에 따른 국민국가 건설의 길로 나아갈 것을 요구받았다. 그래서 남경정부는 각종 단체를 통합시키고 당정의 지배아래 놓음으로써 사적인 권력을 통제하고 국민당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의 건설을 이룩하고자 했다.¹⁴⁾

이러한 남경정부의 민생주의 이념은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제3의 길을 의미했다. 실업진흥과 절제자본은 그들이 근대국가의 건설에 있어 모순적인 두 이념을 조합하려고 했음을 보여준다. 『子夜』에서 吳荪甫의 이념과 자산

14) 이상의 민생주의와 훈정에 대한 설명의 일부는 이병인, 『근대 상해의 민간단체와 국가』, (서울: 창비, 2006), pp.145-163 참조.

계급으로서의 실천은 이러한 민생국가의 이념과 유사하다. 그는 민족자본가로 실업진흥의 선봉임을 자임한다. 그는 민족의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민족공동체가 공동번영할 수 있다고 믿는다. 금전적 이익만을 위해 투기조차 마다않는 금융자본과 자신을 구분짓고 방직공장 등 여러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면서 산업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자본가로서 그는 자신의 산업활동의 의미 가운데 하나가 같은 민족으로서 노동자들의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노동자들의 스트라이크와 정치적 행동은 반대한다. 또한 향촌에 세력을 넓히는 공산당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한다. 그는 고향인 雙橋鎮에 공장을 세워 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전근대를 극복하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그의 경제산업 분야에서의 활동은 앞에서 언급한 남경정부의 지배아래에서 국민당의 이념으로서 전개된 민생국가의 이념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러나 남경정부가 처한 현실이 그들의 이념이 실현되기 어려웠던 것만큼 吳荪甫의 이상의 실현도 현실 앞에서 좌절을 겪게 된다. 남경정부는 제국주의의 침략을 방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직은 미완인 통일국가의 수립을 위해 군벌 및 공산당과 지속적으로 전쟁을 벌여야 했다. 정변을 통해 장악한 그들의 권력은 공고하지 않았으며, 다양한 정치적 라이벌들에 의해 위협받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권의 생존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다. 전쟁 아래에서 집권 정부는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국가 건설과 발전을 가져갈 수 없다. 남경정부는 전쟁이 지속되는 특수한 상황속에서 자유시장의 완전한 경쟁에 의지할 수 없었으며 산업과 금융권의 국유화나 내지로의 이동과 같은 국가주도의 경제발전 전략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국유화 자체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 이러한 자금은 제국주의 국가의 경제적 침략이 노골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인 시장을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결국 이것은 공채의 발행과 각종 세금의 신설 등을 해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 작품에서 吳荪甫, 孫吉人, 王和甫 등 은행을 조직하고 공채시장에 뛰어들기로 뜻을 모은 사람들은 공채시장을 민족산업 육성이라는 목적에 활용될 수 있

다는 낙관적 전망을 보이지만 실재는 반대로 비관적이었다. 불안정한 경제, 권력과 이윤의 소수의 독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구축한 공채시스템 내에서 투기가 공공연히 조장되었다. 그 불안한 공간에서 사람들은 일확천금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결국 공채는 민족산업 육성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이들의 성과가 아니라 이를 투기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미끼와 같은 것이고 소수의 투기꾼이나 그 끝에 있는 소수 재벌과 정치가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이는 정치적 권력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조차 소수에게 집중되는 현상을 심화시켰을 뿐 아니라 권력과 체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야기했다.

앞에서 말했듯 공채의 발행은 산업시설에 대한 투자보다는 금융의 단기간의 투기성 투자를 통한 이윤을 확보하려는 금융자본의 투자를 부추겼다. 吳蓀甫와 대립하는 趙伯韜는 대표적인 금융자본가로서 산업과 생산을 바탕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에서 협잡과 사기를 통해 시세를 조작함으로써 타인의 돈을 노린다. 군벌과의 전쟁의 판세에 따라 투기시장은 요동을 치며, 향촌의 권력이 바뀔에 따라 지역에 자리한 산업시설은 불안정한 상태에 처한다. 향촌과 도시 사이는 상품의 이동뿐 아니라 자금의 이동도 불확실해진다. 공업과 금융 양자는 공히 유동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돈을 가진 이들은 고정적인 공업에 투자하기 보다는 보다 유동적인 투기 시장의 불안정성을 이용해 일확천금의 기회만을 엿보게 된다. 농촌에서 도시로 흘러든 馮雲卿은 지주의 신분을 이용해 고리대공업으로 농촌을 착취하고 파탄시켰으며 그 자금을 바탕으로 흘러든 도시에서도 실업진흥이 아닌 공채시장에서의 투기에 빠져든다. 그는 특히 국민당의 민생주의국가에서 투쟁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토호열신이었다. 그가 농촌에서 치부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다시 도시에서의 치부는 사실 남경정부가 용인한 것이기도 했다. 남경정부가 민생경제의 이념상에 있어서는 농촌의 봉건적 잔재와 투쟁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착취자로서 토호열신을 제어하거나 단죄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민족산업의 육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농민들이 도시에서의 산업예비군으로 전화되는 것이 필요했고, 산

업에 투자할 자본이 축적되는 것이 필요했다. 이는 농촌의 토호나 지주들을 통해 농민을 수탈하고, 그들이 확보한 자본이 도시로 흘러들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들 봉건의 잔재들은 향촌에서 고리대금을 통해 자본을 확보하고 그것을 다시 도시로 가져와 증권거래소에서 공채투기에 빠져들었다. 이들이 뿌려놓은 자본은 소수의 집권자와 대자본, 그리고 외국의 자본에 흘러갔다. 농민과 대자본/권력자 사이에서 이들은 자본의 유통선 중간에 위치해 일방의 착취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들의 이러한 위치와 역할을 만들어 낸 것은 당시 현실의 정치와 시장이었다.¹⁵⁾

이러한 상황에서 吳荪甫와 같은 산업자본가들의 좌절과 몰락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정부와 소수의 금융자본들은 경제적 이윤을 확보할 수 있지만 산업자본가들은 위기를 맞이해야 했다. 그들은 외국 자본과도 경쟁해야 했지만, 국내에서도 이윤을 확보해야 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은 도시와 농촌을 아우른다. 그 시장에서 산업자본가들이 만나야 했던 이들은 상품에 대한 구매력이 현저히 떨어진 민중들이었다. 또한 민중에게 산업자본가이든 금융자본가이든, 향촌의 고리대금업자이든 그들을 착취한다는 데는 다름이 없었다. 피폐해진 민중의 존재는 민족산업의 발전에 치명적인 약점이었으며 이를 야기한 것은 불

15) 지역 토호들이 고리대금을 통해 농민을 착취하고 도시와 농촌의 중개인으로서 자본의 흐름에 관여하는 일은 봉건제 하에서도 존재했다. “상인들은 지역이나 도시와 마을 사이의 중개인으로서 활동했으며, 생산자를 착취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기생적인 존재가 되었다. 상업 자본(상인의 자본과 고리대금의 혼합)은 농민들을 빈곤에 빠뜨렸고, 더 나아가서는 토지를 잠식함으로써, 농촌의 생계를 뿌리부터 흔들어 버렸다.” 이러한 상황은 현대중국에서도 해소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농촌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갔다. “이러한 논자들이 ‘봉건적 관계’라고 언급했던 것은 사회경제적 구조로부터 관행까지를 포함하는, 중국 사회의 전통적인 농업적 특징으로 설명될 수 있다. 판둥저우와 그와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던 이들은 ‘봉건제’의 증거로서 원시적 수단에 의해 이루어지던 농업 경제로 후퇴하는 경향이 존재했음을 주장했다. 이러한 퇴보의 부산물은 중국 경제의 지역적 불균등 발전 혹은, 다른 말로, 국내 시장의 부재였다. 중국이 봉건적이라는 주장은 기본적으로 중국 농촌에 만연했던 착취의 방식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노선의 대부분의 주장들은 1927년 5월 중국공산당 5차대회(五大)의 선언에서 제기된 모델을 따랐다. 이 선언은 특히 봉건적 착취 방식의 예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고율의 지조地租, 임의의 과도한 임대료, 농민의 지주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종속, 상업 자본과 고리대금업자에 종속된 군벌과 관료의 중국 농촌에 대한 통제 등. 여기서 상업자본과 고리대금업자들은 지주에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역시 봉건적 착취의 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다.”

안정한 정치와 체제였다.

지속적인 전쟁은 투기시장의 불안정성을 강화시켰을 뿐 아니라 산업의 안정에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자본만이 아니라 산업자본 역시 흔들리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의 산업적 기반 자체가 금융자본에 의해 붕괴되는데다가 쉽게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상황에서 그 유혹을 이겨내기란 쉽지가 않다. 민족자본가로서 吳蓀甫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는 민족자본가로서 프라이드를 갖고 산업진흥의 열망을 실현하고자 하지만 자금의 확보를 빌미로 공채시장에 뛰어든 후에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데 吳蓀甫가 공채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趙伯韜 같은 이들의 계략에 빠져든 면도 있지만 시장의 흐름과 정치적 변화 속에서 판단하고 대응해야 하는 吳蓀甫가 자발적으로 행한 것이기도 했다. 그들이 처한 현실에서 산업자본이든, 금융자본이든 자본가로서 경제적 이윤을 바라고 이를 위해 분투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지가 되었다. 민족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채시장에서의 참여를 “大計劃”¹⁶⁾으로 포장하지만 물에 발을 담근 그는 온몸을 적시지 않을 수 없었다. 동업자 王和甫는 다음과 같이 말했고 吳蓀甫는 이에 동의한다. “지금 우리에게 빈 껍데기인 益中공사 하나만 남아 있네, 자금을 빼다가 기회를 봐서 다시 하도록 하세나.....우리의 이번 공장 건들이 이렇게 악화된 것은 시국이 평탄하지 않아서야. 하지만 이러한 시국이 오히려 공채에는 좋은 기회지! 우리 공장을 운영하는 자본을 공채로 돌리자고. 다시 한 번 趙伯韜와 싸워보자고.”¹⁷⁾ 일단 뛰어든 공채시장에서 吳蓀甫 등은 趙伯韜가 만들어 놓은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역시 투기시장에서의 금전적 이윤을 쫓는 노예가 된다. 공채시장에서의 전쟁에 이기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 그들에게 여덟 개 공장은 헌신짝과 같은 것일 뿐이다. 공장으로 대표되는 산업방면에 투자된 자본을 투기로 전용하는 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생존의 출로였다. 민족산업의 육성이라는 원대한 꿈을 가졌던 이들이나 금융시장에서의 투기에만 빠

16) 茅盾, 『子夜』, 『茅盾全集·3』,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4), p.64.

17) 茅盾, 『子夜』, 『茅盾全集·3』,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4), p.509.

저있는 趙伯韜가 다를 것은 없었다. 심지어 농촌의 몰락한 지주이자 천박한 고리대금업자인 馮雲卿과 같은 이와 이들이 다를 바는 없어 보인다. 패배를 원치 않는 본능적인 최후의 일격이었으나, 그 바탕에는 동일한 욕망이 놓여 있다. 그들에게 절제자본의 이상은 이 시점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결국 그들 모두는 이윤을 위해 서로 속고 속이며 물고 물리는 투기의 전장에 있다는 공통점만 있을 뿐이다. 그들을 민족자본이니, 금융자본이니, 혹은 매판자본이니 등으로 성격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악화되는 상황에서 의미 없는 일이었다. 결국 지난한 趙伯韜와의 대결의 끝에서 吳荪甫는 패배한다. 게다가 처남인 杜竹齋의 배신은 덤이다. 이는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이 그를 패배로 몰고 갔다.

이와 같이 吳荪甫의 실패와 몰락은 그들이 처한 객관적 상황에서 필연적이었다. 민생주의를 지탱하는 민족자본가의 몰락은 당시 정치적 상황 하에서 벌어진 경제 및 산업의 취약성에 기인하며 이는 실업진흥과 절제자본의 이상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불안한 정치와 경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민생주의에 바탕을 둔 근대는 실현되지 않는 허위적인 상상일 뿐이다.

4. 주체의 확대

『從牯嶺到東京』 『『子夜』』 『『子夜』是怎樣寫成的?』 등 일련의 글에서 공교롭게도 “병”이 늘 언급된다. 남이 병을 앓고 있기도 하고 자신이 병을 앓았기도 하는데, 또 공통되는 것은 심리적으로든 생리적으로든 “병”에서 벗어나거나 치료된다. 이렇게 “병”을 언급하고 또 그로부터 벗어났다는 듯한 언급은 그가 어떤 실패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실패를 객관화하고 보여줌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를 다시 『子夜』로 좁혀서 본다면 앞에서 언급했던 당시 중국의 정치·경

제적 상황 하에서 민족자본의 실패는 분명히 “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병을 읽어낼 수 있다. 실패와 몰락은 정치와 경제의 객관적 실재만이 아니라 그에 영향받으며, 역으로 그것에 영향을 주었던 인간 군상의 실패이며 이는 곧 주체의 문제이고 주체의 “병”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병”의 색깔은 너무도 다양하게 드러난다. 작품의 줄기는 외적으로는 민족산업의 육성과 근대적 경제발전이라는 이념의 실패와 몰락이지만 그 안에서 실패하는 이들은 자본가와 노동자의 적대적 계급만이 아니라 단일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소자산계급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자유주의자들까지 포함된다. 『從牯嶺到東京』의 문제 의식은 여기에서도 유효하다. 그는 역사발전의 동력으로서 계급투쟁이라는 이론에 입각해서 특정한 계급과 그 투쟁의 과정을 서술한 것이 아니다. 그는 오히려 이념적, 이론적으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상황에 처한 다양한 인물을 통해 주체의 주관적 경험과 그 색을 보여주고 있다.

茅盾은 작품에서 두 그룹의 자본가를 설정하고 있다. 그들은 은행의 설립과 공채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趙伯韜와 같은 이들에게 공채는 투기의 대상이며 은행은 자금을 확보하거나 이자를 증식하는 수단일 뿐이다. 반면 다른 吳荪甫, 孫吉人 등은 실업 진흥의 입장에서 그것을 이야기했다. 孫吉人이 “저는 본래 은행을 만들어 다양한 업종의 기업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은행은 열기만 한다면, 대부분의 자본을 매우 희망이 있는 기업의 경영에 투자할 생각입니다”¹⁸⁾와 같이 구체적인 목적과 방법 등을 제시하자 吳荪甫는 이러한 孫吉人の 생각에 동의하며 그들과 함께 은행을 만들고 자본을 확보해 기업을 인수한다. 그들은 민족산업의 육성이라는 원대한 꿈을 가진 이들로 스스로를 상징하고 금융자본, 혹은 매판자본과 자신들을 구분짓는다. 그러나 그들은 공채 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吳荪甫는 야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이룩하기 위한 교활함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떠한 수단도 거부하

18) 앞의 책, p.80.

지 않는다. 공채시장에서 그는 자본가와 협잡의 수단을 버리지 않는다. 노동자에 대해서도 屠維岳을 통해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이간질시키고 그들의 투쟁을 막는다. 그는 자본주의적 상하이에서 자본가로서 금전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권력에 가깝다.

남경정부의 입장에서 절제자본은 집권 후 계급간의 조화에 바탕을 둔 혁명의 전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절제자본의 관점에서도 자본과 노동은 평등하지 않다. 자본 측은 주의 위치에 있으며 절제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가진 자가 베푸는 시혜의 의미가 짙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절제를 통해 베푸는 시혜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는 노동계급은 조화를 깨는 적이 된다.

자신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투쟁을 대하는 吳荪甫의 태도는 이중적이다. 그는 민족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같은 민족으로서 노동자의 삶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한다. 산업자본가의 산업의 발전은 생산력을 제고하고 생산되는 상품은 인민의 물질적 욕망을 해결한다. 또한 작게는 노동자들의 취업과 생계의 문제를 해결한다. 곧 민족자본가가 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민족 전체의 생산력과 물질 생활의 문제의 해결을 방해하는 제국주의에 맞서 민족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기존에 도시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방직공장, 益中을 통해 인수한 많은 공장들, 그리고 雙橋鎮의 공장 등등에서 연이어 터져 나오는 스트라이크를 대하는 그의 태도는 실업진흥의 궁극적 목표가 같은 민족으로서 노동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생각과는 모순된다. 그는 민생주의국가, 실업진흥의 이념으로 노동자들을 회유하면서도 屠維岳과 같은 중간관리자들을 이용하여 노동자를 분열시키는 방법을 취했으며, 스트라이크에 대해 경찰의 보호를 요청하고 이들의 힘을 빌어 노동자들을 탄압한다. 투기시장에 뛰어들어 금전적 이익을 위해 치열한 싸움을 전개하고 있는 그에게 노동자의 발호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노동자의 투쟁은 그의 입장에서 본다면 민족산업의 진흥이란 큰 그림과 전선을 분열시킴으로써 진정한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 그가 취한 방법은 실상은 지배자로서의

권력을 심분 활용하는 것이다. 그 힘 앞에 원대한 이상은 소용없으며 그 속세적 이익 앞에서 그는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한다.

그런데 작품은 몰락을 야기하는 외적 조건을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민족자본가로서 吳蔭甫가 마주하는 사건들 속에서 그의 사고와 방법을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인 그의 경험 속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반응과 외적으로 보이는 선택을 통해 우리는 그의 한계를 보면서도 오히려 가능성의 단초를 볼 수 있다. 그것은 그가 병의 그림자가 아니라 병 자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객관적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민족자본가의 한계의 일부는 당시의 현재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미래에 방법적인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이들과 대척점에 있는 노동자들은 자본가와 생활에 있어서 이념에 있어서 극명한 대비를 보인다. 그러나 그들이 처한 현실은 결코 이상적이지 않으며, 그들의 생각과 경험도 이념적으로 재단된 것과 달리 일관된 혁명성을 보이지도 않는다. 혁명문학논쟁의 전개를 통해서 도시의 대공장 노동자들은 신흥계급이라는 이름으로 혁명의 주체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념적으로 재단된 노동자들이지 실제 노동자들의 모습은 아니었다. 도시의 노동자들은 오히려 분열되어 있었고, 전근대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다. 농촌에서 도시로 온 이들은 취업하기가 쉽지 않았다. 취업이나 취업 후 공장 생활을 위해 노동자들은 동향조직에 의존해야 했다. 吳蔭甫의 공장에서 노동자의 적으로 제시되는 인물들 역시 동향조직의 우두머리, 혹은 幫派의 幫頭¹⁹⁾로서 노동자들의 취업과 작업 투입에 개입되어 있는 이들이었을 것이다. 출신지의 누군가가 우두머리 역할을 했고 이들은 취업이나 생활 방면의 일을 돌봐주었던 것이다. 이들은 중간관리자와 같은 입장에서 출신 노동자에 대한 지배와 종속의 관계를 강제했다. 게다가 출신지에 따른 노동자 내부의 적대 관계도 있었다. 공산당 등이 마련한 혁명적 조직들이 노조를 통해 노동자들을 교육하고 조직

19) 농촌에서 도시로 몰려든 노동자들은 아는 사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기 쉽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동향사람이나 동향조직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구직, 작업 배치, 파업 등 노동자들의 생활과 활동은 이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병인, 『근대 상해의 민간단체와 국가』(서울: 창비, 2006) 참조.

하려고 했지만, 노동자 내에는 이처럼 뿌리깊은 봉건적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단일하고 강건한 노동자의 계급의식은 기대하기 쉽지 않았다.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발전도 충분히 완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객관적으로도 “노동자계급”으로 지칭되기는 어려웠다. 이들의 삶에서의 경험 역시 전근대적이었던 것이다. 노동자들은 통일되지 않았으며 분열되었다. 거기에 노동자들을 지도하려는 이들은 노동자들의 현실과는 괴리된 채 당의 지도와 이념에 얽매어 고착되어 있었다. 吳蓀甫는 자신이 고용한 중간관리자들과 이들 어용화된 노동자 조직의 우두머리들을 이용해 공장 내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는 노동자들에게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 참고 기다릴 것을 강요한다. 여기에 더해 그는 노동자들의 단결을 두려워하여 以夷制夷의 방법으로 노동자들의 분열과 반목을 조장한다. 노동자들의 파업과 진압의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결코 자본가와 동등한 입장으로 대접받지 못하며 실업진흥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부속품과 같은 지위를 확인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공장에서만 아니라 사회 내에서도 그러했다. 객관적 상황과 주체의 경험, 지도의 오류 등은 종합적으로 얹혀 노동자들의 실패를 만들어 냈다. 吳蓀甫의 공장을 중심으로 전개된 노동자들의 파업은 陳月娥, 朱桂英 등의 체포로 끝을 맺고 만다. 자야에서는 당시 도시에서 투쟁이 실패하고 농촌으로 내몰리게 된 실제적인 상황이 적나라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시선이 가는 것 또한 결국은 태도와 방법의 문제이다. 작품에서 드러나는 노동자의 실패가 호소하는 것은 결국은 구체적 경험으로부터 출발해야 함을 보여준다. 노동자들의 일상이 경제적 빈곤과 좌절, 그리고 전근대적인 관계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에서 권력을 부리듯 전해지는 지도는 앞에서 언급한 일방적 보편성의 강제와 다르지 않다. 그 안에 특수한 개별의 경험이 고려되지 못하고 투쟁은 실패하고 마는 것이다.

또한 작품에서는 자본가와 노동자와는 다른 일군의 무리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하나로 묶기에는 너무도 다양한 모습이다. 牯嶺에서 이야기했던 소자산

계급은 사실 경계가 모호하다. 그들은 상인, 지식인, 학생, 룬펜, 건달 등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이들이다. 작품에서 이들은 즐기에서 벗어나 있다. 공채시장을 둘러싼 吳蓀甫와 趙伯韜 간의 대립이나 吳蓀甫, 중간관리자, 어용노동자들과 파업을 주도하는 노동자들 사이의 대립은 극적인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작품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그에 비해 이들 張素素, 吳芝生, 范博文, 杜新籜, 林佩珊 등등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도시 청년들의 활약은 미약하다. 그들은 각자 다양한 고민을 가지고 있으나 吳蓀甫 등의 자본가나 屠維岳와 같은 중간관리자, 陳月娥 등의 노동자와 같은 이들과는 달리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 자본가들의 속물 근성에 대해서도 거리의 운동의 열기에 대해서도 그들은 이와는 벗어나 다소 허황되어 보이는 낭만성을 보인다. 일부는 혁명에 참여하기도 했고, 현재의 투쟁에 관심을 기울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은 방관자이거나 중간자이다.

그들은 근대의 욕망과 근대의 비판을 가장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이들이다. 그들은 당시 상하이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향수한다. 그것은 그들에게 누려야 할 욕망의 대상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유를 갈망한다. 이것은 정치적인 자유이기도 하면서 개인적인 자유이기도 하다. 자본가의 속물 근성에 비판적 이면서 자유를 억압하는 일체의 것에 대해 반감을 갖는다. 그들의 성격이 하나로 규정될 수 없듯이,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삶은 다양한 색깔을 보인다. 『從牯嶺到東京』에서 그가 잠시 언급했던 소자산계급이 바로 이들이다.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시기 그의 창작은 그가 처한 현실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의 문제를 드러냄과 아울러 현실 투쟁의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었으며 아울러 이를 향수하는 독자대중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각성의 문제이기도 했다. 독자대중의 확대는 주체의 확대를 말하는 것이며 그들에게 새로운 각성을 요하는 것이었다. 이는 그들이 마주한 현실과 그것을 관통하는 특정한 근대의 이념이 허위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吳蓀甫를 통해 실업진흥, 절제자본, 반근대의 민생국가의 이념의 모순과 좌

절이 드러난다. 그런데 그것은 吳荪甫의 계급적 한계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표면화되는 것은 사건을 통해서이다. 민족자본가로서 확고한 정치경제적 이념과 이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吳荪甫는 공장 운영, 기업인수합병, 공채시장의 투기 등 자본주의 상하이의 경제 시스템 내에서 수많은 갈등과 선택의 상황에 직면하면서 좌충우돌한다. 정치경제적 신념은 허위적인 한낱 관념일 뿐이며 현실 앞에서 무의미해진다. 전쟁과 독재(훈정), 투기시장의 과열 등은 당시 중국사회의 역사적 단계와 연결된 외적인 시스템으로서 다양한 근대적 실험의 좌절을 야기했다. 吳荪甫의 좌절은 그 일단이다.

그런데 吳荪甫의 패배와 좌절이 특정한 근대적 이념의 좌절로 읽히지는 않는다. 작품의 끝에서 吳荪甫가 趙伯韜와의 경쟁에서 믿었던 杜竹齋에 의해 배신당하면서 패배로 끝난다. 그러나 그의 미래는 열린 결말로 막을 내린다. 그는 잠시 떠날 것이지만 결국은 돌아올 것이며, 그가 돌아왔을 때, 민족자본가 이상의 다른 이로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의 근대적 이념의 허위성이 드러나는 것은 사건들이다. 냉혹한 투기시장, 참예한 갈등의 파업 현장, 위선적이고 부도덕하며 억압적인 가정사에서 그의 이상은 하나하나 좌절된다. 그러나 그 좌절이 그의 이념이 대표하고 있는 근대적 이상 자체를 부정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그것이 현실에서 좌절되고 변모된다면, 좌절을 막기 위한 노력도,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도 결국은 현실에서 전개해야 하는 것이다. 반제반봉건 투쟁을 이야기하는 신사조파의 중국사회분석과 이를 채택한 공산당의 노선과 여전히 신문학의 확장과 발전을 위해 계급가 연대에 대한 기대는 『子夜』에서 그의 비판적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말해준다. 중국의 현실에서 민족자본가의 출로는 현실의 여러 조건 하에서 실업진흥의 길은 좌절되지만 그 가치와 물적인 토대는 사라지지 않는다. 吳荪甫의 몰락은 체제 내에서의 이념의 좌절이다. 『子夜』는 吳荪甫나 노동자들, 젊은 세대들의 좌절은 절대적이지 않을 것이며 근대를 향한 그들의 실천이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었다.

민족자본의 몰락, 노동자의 파탄, 소자산계급이 불안정은 중국이 처한 객관

적 조건에서 필연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 다양한 계급의 구체적인 삶의 경험과 심리를 보여줌으로써 그들 각자의 존재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吳蓀甫는 결국 돌아올 것인데, 그것은 그들의 몰락을 가져온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그것이 서구로부터 도래한 이론으로는 재단할 수 없는 그들의 구체적 현실임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인물들과 그들의 경험에서부터 현실의 극복과 발전의 다른 답이 모색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辛亥革命 이래로 지속되어왔던 국민혁명이 비극적 결과로 일단락이 되면서 혁명의 성격은 변화했다. 혁명의 이름 하에 잠재되어 있던 상이한 근대의 이념은 그 갈등을 노골화게 되었고 권력에 접근한 특정한 이념만이 체제 내에서 강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학은 기존의 혁명적 실천을 반성하면서 다른 근대를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자 했다. 茅盾의 『子夜』는 그러한 맥락에서 반봉건의 도덕의 제시와 계몽을 넘어 현실의 역사적 단계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이에 다른 새로운 전망의 제시라는 요구에서 비롯되었고 또한 새로운 혁명적 실천을 수행하는 주체의 외연을 확장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창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吳蓀甫가 대표하는 민족자산계급의 이념은 남경정부의 민생주의 이념과 친연성을 갖는데, 그 안에 담긴 실업진흥과 계급화해의 허위와 좌절이 작품 속의 인물과 사건들의 교차 속에서 폭로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근대에 대한 상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좌절되는 현실의 체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체제 속에서 인물들은 부단히 자신의 이념을 위해 실천해 갔다. 각각의 근대를 추진하는 이들의 패배는 절대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子夜』는 이런 의미에서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현실과 체제에 대한 인식과 혁명을

실천하는 주체의 확대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 參考文獻 >

- 茅盾, 『子夜』, 『茅盾全集』 3,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4.
- 茅盾, 「從牯嶺到東京」, 『“革命文學”論爭資料選集・下』,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1.
- 홍석표, 『중국현대문학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9.
- 정진배, 「『子夜』 읽기의 한 유형—글쓰기와 역사성의 문제」, 『중국어문학논집』 15, 중국어문학연구회, 2000.10.
- Arif Dirlik, *Revolution and History*,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8.
- David Der-wei Wang, *Fictional Realism in 20th—Century Chin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2.
- Joseph W. Esherick ed, *Remaking the Chinese City: Modernity and National Identity, 1900-1950*, Hawaii,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9.

< Abstract >

So-called April 12 Incident was the turning point of National Revolution of China. The practice and values of previous revolution was reconsidered and various group and class came to try to find new imagination and practice of revolution. Under this circumstance, aims of literature had shifted from establishing modern morality and enlightening the nation to awaring the historical stage and realities of current society and imaging new modernity. Mad Dun' Ziye(子夜, Midnight) showed the collapse of the Principle of Minsheng and the promotion of industry which was corresponded to the national bourgeoisie, Wu Sun Fu's various activity in the system of Nanjing Nationalist Government.

Key words: revolution, modernity, left-wing literature, morality, enlightenment, the Principle of Minsheng, the promotion of industry, national bourgeoisie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5. 12. 31.	2016. 1. 22.	2016. 1. 23.	2016. 2. 19.	2016. 2. 29.